



4면

도교육청·네이버클라우드 '맞손'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음 9월 10일) 제33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1년간의 활동 회고

### 내달 2일 폐막식... 한·중·일 문화공연 프로그램 구성

전주시가 감동의 폐막식으로 한·중·일 문화 교류에 앞장서 온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시는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일주문홀에서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의 지난 1년간의 교류사업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폐막식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발차취 형식으로 편집한 영상을 통해 지난 기간들의 양산한 교류 활동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폐막 선언에 이어 중국 교향악단의 음악과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악기인 사미센을 이용한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폐막식에서는 세계적인 태권도 시범단이자 태권도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K-Tigers'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폐막식 포스터

와 퓨전 국악밴드 'AUX'가 초청돼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폐막식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 1년간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전주에서 펼쳐진 각각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교류사업을 소개하는 아카이브 사진 전시회도 함께 마련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지난 4월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국의 청두시와 메이저우시, 일본의 시즈오카현과 서로 교류해왔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영화특별전 △한 여름밤의 삼색동락 △현대미술교류전 △무형유산 국제문화교류 △전통월드 음악공연 △전주 예술 난장 등 총 11개 교류사업이 전주에서 펼쳐졌다.

황관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가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래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2년간 힘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폐막식 행사를 통해 전주시민들과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서로 공유하고,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자치인재원 전북 이전 10주년'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류입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전북도, 렘피스킨병 유입 차단 최선

### 23일 현재까지 도내 소 농가서 의심신고 없어 동물위생시험소 정밀진단기관과 연계 신속 대응

전북도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렘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23일 현재 기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17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내 유입 차단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렘피스킨병 발생으로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소 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20

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발령, 도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집중 방제 및 예찰활동·소독 강화 등에 나섰다.

신속대응을 위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고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도 경계 통제소 운영을 강화하고, 가축시장(11개소) 폐쇄 조치, 소 사육농가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긴급방역비 예

산 2억원 투입 및 보건소 연무소독 장비와 축협 공동방제단(46개단) 소독차량을 동원해, 렘피스킨병 전파 매개체인 모기류,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의 방제와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공수의사를 통해 현장 임상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23일까지 도내 소 농가에서 렘피스킨병 의심신고는 없었으며, 소 전 농가(9,651호)에 대해 전화예찰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기관과 연계해 렘프스

킨병 의심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구축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소 사육농가는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하고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구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그열, 피부 혹덩어리(Lumpy), 우유유선낭 감소 등 렘피스킨병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 '새만금 예산 복원'... 도내 각계각층, 국감장 시위

### 전북비상대책회의·새만금 대응단 등, 오늘 피켓·침묵 시위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새만금 SOC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전북 각계각층의 항의성 시위가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쟁점 파행과 새만금 SOC 적정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감'이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의 시민사회·

경제·종교 단체로 이뤄진 전북비상대책회의는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 감축'을 비판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펼친다. 참여인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쟁점리 질실규명 대응단'도 4층 감사장 앞과 도청 현관 및 1층 로비에서 피켓·침묵시위를 한다. 참여 의원은 국주영은 전북도지장을 비롯해 김이재·강태창·김성수·김정수 의원 등 34명이다. /뉴스

## '도시에 활력을'...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25~28일 익산서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지방 중소도시 중 처음으로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오는 25~28일 나흘간 영등동 일원에서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한눈에 알아보고, 국내·외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개최되고 있다.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에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옆 옛 보일론 공장 부지를 무대로 한다. 300여 개 부스가 설치되며, 온·오프라인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

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3시 행사장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축하공연과 도시혁신 홍보영상 상영 등 주요 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28일 '도시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중소도시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을 알아본다.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의 전문가, 언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첨단기술세미나 해양수산부·전북도·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세미나 1H 토지구획연구원 세미나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정책 교류를 진행한다.

특히 익산시는 산업박람회 기간 전국 시군구 실무자들에게 도시재생 거점시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역 일대와 청년시청 등 익산시 주요 도시 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실무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Nice to meet samyang

##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천연 유래 Beauty & Personal Care 소재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

축! 전주매일 캠페인

삼양홀딩스 | 삼양사 | 삼양바이오팜 | 삼양패키징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 삼양이노켄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 KCI | 삼양에프엔비 |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EP형가리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삼양EP베트남 | 삼양바이오팜USA | 영영수당재단